

#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교육적 효용성 분석\*

## The Analysis of Educational Effectiveness on Archival Contents for History Education

신 예 진 (Ye-Jin Shin)\*\*

최 재 황 (Jae-Hwang Choi)\*\*\*

### 목 차

1. 서론	5.1 연대기 파악력
2. 선행 연구	5.2 역사적 탐구력
3.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사례 분석	5.3 역사적 상상력
3.1 국외 사례	5.4 역사적 판단력
3.2 국내 사례	5.5 서술형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의 변화
4. 연구의 방법	6. 결론
5. 연구의 결과 분석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고안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의 활용 수업 결과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법을 통해 검사하고,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의 교육적 효용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국내외 사례를 역사적 사고력의 증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고, 그 결과 얻은 시사점을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인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검사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생들은 사후검사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역사적 사고력, 기록정보 콘텐츠, 교육용 콘텐츠, 기록 콘텐츠, 기록정보서비스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historical thinking contents through the experimentation methodology. The procedures of this study will review foreign and domestic historical thinking cases of archival contents for history education; derive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view; and apply the implications to classes targeted for first year high school students. It can be said that classes utilizing historical thinking contents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subcategories of historical thinking, that is, chronology comprehension ability, historical inquiry ability, historical imagination, and historical judgment ability. The average between before and after examination results shows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students obtain better scores after examination than before.

Keywords: historical thinking, archival contents, archival contents for educatio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년 2월)을 축약·수정한 것임.

본 연구는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기록연구사(ilysh518@hanmail.net)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k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5년 7월 26일    ■ 최초심사일: 2015년 8월 7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20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193-217,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3.193>>

## 1. 서론

최근의 기록관리 체제는 보존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정보를 활용하고, 열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정보의 제공을 위해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아가고 있다.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록정보 콘텐츠는 이용자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기록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물이 전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가공한 것이다.

영국의 TNA나 미국의 NARA 등 기록관리 선진국의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는 역사의 시기별 및 학령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역시 국가기록원은 온라인 콘텐츠 중에서 19개의 콘텐츠를 교육 콘텐츠로 분류하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 비해 수량도 적고, 유형도 다양하지 못하며,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적어 교육 콘텐츠로서의 미흡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한다면 기록정보 콘텐츠 이용자의 저변을 다양화할 수 있고, 학습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정보 콘텐츠를 수업에서 활용하기에는 역사과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역사가 이 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이므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교수·학

습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져 생동감 있고 흥미 있는 수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인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상훈(2000a)에 의하면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는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으로 구분된다. 역사가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하고 인간의 삶과 여러 현상을 연대기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능력을 연대기 파악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할 때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학생 스스로 핵심적인 역사적 용어와 개념을 파악하고, 시대 순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구조화 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적 탐구력은 역사가가 사료를 근거로, 과거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범주에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을 아는 능력, 사료비판 능력, 역사문제를 인식하고 사료를 수집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역사적 상상력은 사료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과거 인물의 심적 상황을 추체험하는 능력이다. 역사가의 작업에서 역사적 상상력은 재연을 통해서 발휘하게 된다.<sup>1)</sup> 재연을 위해서는 역사적 행위자의 목적, 의도, 상상을 파악해야 하고,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통해 표면적 사실 이상의 것을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판단력은 역사적 사고력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역사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중요

1) '재연'은 과거인의 사고를 알기 위해서 역사가가 과거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과거인이 되어서 다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하위범주가 된다. 역사가는 역사 연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를 판단하고 연구를 위해 이용 가능한 사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며, 사료 간의 연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학습자들에게 논쟁점에 관해서 역사 증거를 토대로 다양하게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상훈(2000a)이 주장하는 역사적 사고의 하위범주별 규정에 의한 역사적 사고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하위범주별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sup>2)</sup>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할 때 역사적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최상훈의 하위범주 규정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별 규정에 따른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어 기록관리 선진국 및 국내의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분석해 보고,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에 대한 분석의 결과 얻은 시사점을 반영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보고, 수업 전·후에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이 하위범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후,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의 교육적 효용성을 분석하여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선행 연구

본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교육, 아카이브를 활용한 역사교육,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개발 및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역사적 사고력의 향상인 만큼 이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역사적 사고력의 향상을 위해 비판적 글쓰기, 탐구학습, 사료학습, 감정이입, 연표의 활용 등의 학습모형을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별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정해준, 1995; 김지수, 1996; 최세훈, 2004; 강영아, 2007; 장문각, 2011; 정나래, 2011).

오향녕(2007)은 역사, 역사교육, 아카이브의 개념을 연결 짓고, 아카이브를 활용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역사학과 기록학에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김희경(2008)은 국가기록원의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중학교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포함하는 수업모형, 자료집 및 교사 워크숍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으며, 이태은(2010)은 아카이브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학습이 이루어져 학습자들에게 아카이브 활용능력, 1·2차 사료의 구분, 저자의 주관성 이해의 폭 증대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로는 심성보(2007)와 이은영(2011)의 연구가

2)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는 기존의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두어 역사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것을 말한다.

있다. 심성보(2007)는 세분화된 이용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분석이 필요하며, 교수·학습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조 및 구성, 개발절차의 핵심사항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발, 기록관리의 체계화와 전통 기록관리 서비스의 활성화에 일조,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협업체계 구축, 기록정보와 주제별 교수·학습활동 연계, 콘텐츠 품질 우선,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 제휴 등을 제안하였다. 이은영(2011)은 보존 기록관리 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의 절차적 논의를 진행하고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컬렉션을 분석하였다.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예시로 남북회담 콘텐츠를 기획·분석·설계하여 학생들 스스로 역사를 해석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합리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1차 사료가 중요한 학습 자료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문명숙(2013), 김술(2013)의 연구가 있다. 문명숙(2013)은 온라인기록관의 기록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수업내용의 충실성, 인물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회제공, 사료에 대한 신뢰감, 인물에 대한 이해도 증가 등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였다. 김술(2013)은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 온라인콘텐츠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기존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및 온라인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의 방향과 콘텐츠 개발의 실제, 콘텐츠 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아카이브를 활용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제안한 오항녕(2007)의 연구를 시작으로 기록정보 콘텐츠에 대한 개념이 심성보(2007), 이은영(2011)에 의해 정립되면서 기록정보 콘텐츠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역사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 3.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사례 분석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이 보존에서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이용자 저변의 확대를 위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많은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TNA는 온라인 교육용 프로그램인 '러닝 커브' 서비스를 1998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목적별 접근이 편리하도록 역사의 시기와 학령별로 나누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TNA 다음으로 많은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NARA는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에 관심이 높아 교육적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사의 시기와 학습도구 및 역사적 사고기능별로 나누어 이용자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찍부터 기록정보 콘텐츠를 개발 및 활용해 온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미흡하나 국내에서도 최근 기록정보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사례 분석에서는 기록관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TNA와 미국 NARA의 교육용 웹사이트 및 국내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중에서 역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용자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에 반영되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수업에 활용될 것이다.

### 3.1 국외 사례

#### 3.1.1 영국 TNA의 교육 사이트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

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콘텐츠의 유형별 접근 중 토픽 콘텐츠와 레슨 콘텐츠를 살펴보기로 한다. 토픽 콘텐츠는 다양한 주제의 1차 사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사료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레슨 콘텐츠는 한두 차시의 수업에서 교사가 활용하거나 가정에서 학생들이 숙제로 해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토픽 콘텐츠 중 ‘Civil War’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간에 극적인 시기였던 17세기의 내전을 다룬 콘텐츠로 6개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Key Stage 3~5<sup>3)</sup>에 해당한다. 수업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인 ‘Civil War’에 제시된 학습활동을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갤러리 2의 ‘찰스 1세는 어떠한 왕이었나?’의 학습활동이다.

<표 1> TNA ‘토픽(Focussed topics)’ 콘텐츠 - ‘Civil War’

학습활동	<p>쉬~잇! 너는 스파이다!</p> <p>너는 1620년대 후반, 외국 왕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국왕 찰스 1세와의 동맹에 관심이 있고, 찰스 1세가 유능한 통치자인지 확인하길 원한다. 너의 임무는 외국 왕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너는 영국 기록보존소를 통해 중요 기록물을 볼 수 있다. 외국 왕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찰스 1세는 이전 통치자와 같은 방식으로 통치하는가?</li> <li>2. 찰스 1세는 어떤 성격인가?</li> <li>3. 몇 년 후 영국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가? 찰스 1세의 통치는 안정적인 것인가?</li> <li>4. 찰스 1세와 지배층의 관계는 어떠한가? 너의 답변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증거를 획득하려면 [갤러리 2: 찰스 1세는 어떠한 왕이었나?]를 찾아봐야 한다.</li> </ol>
역사적 사고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자료: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civilwar/g2/activity>

3) 영국의 초·중등 교육은 단계(Key Stage)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만5세이며, 교육기간은 6년으로 Key Stage1(Year 1~2), Key Stage 2(Year 3~6)로 나뉜다. 중등학교는 중·고 구분없이 5년간 운영되며, 교육기간은 5년으로, Key Stage3(Year 7~9), Key Stage4(Year 10~11)로 구분하며, Key Stage 4를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Key Stage 5(Year 12~13)는 후기 중등교육으로 직업교육과정과 대학준비과정으로 운영된다.

〈표 1〉의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찰스 1세와 동맹을 맺길 원하는 외국 왕의 스파이가 되어 선왕과 비교했을 때 찰스 1세의 통치방식, 그의 성격, 주변국과의 관계, 통치 전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의 상황에 상상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목적, 의도, 사상 등을 파악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찰스 1세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드러난 사실 이상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상상의 유형이 감정이입(empathy)이다. 역사적 감정이입은 학습활동의 끝 부분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자료를 근거로 사건과 행위에 대한 해석 및 이해를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료를 비판하고 수집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의 기회를 갖게 되어 역사적 상상력과 탐구력이 신장될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찰스 1세가 효과적인 통치자인지에 대한 학생의 역사적 판단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역사 수업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판단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학생들 스스로가 내린 역사적 판단이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레슨 콘텐츠 중 'Slavery'는 노예제도의 형성과 폐지에 관해 다룬 콘텐츠로 Key Stage 3~4에 해당하며 문서와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이 콘텐츠의 핵심 질문은 '1807년과 1833년의 노예제도 철폐령이 노예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이다. 〈표 2〉의 학습과제에서는 13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을 분석하여 자료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다. 또한 학생이 노예제도 폐지론자 내지 옹호론자라고 가정하고 과거의 상황에 상상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그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 문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학습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과거 사람들이 내세운 주장의 동기, 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역사적 탐구력 및 역사적 상상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역사적 상상은 제시된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노예제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봄으로써 역사적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역사적 논쟁에 접했을 때 학생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의 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3.1.2 미국 NARA의 교사용 자료 사이트

미국 NARA는 홈페이지의 '교사용 자료 (Teacher's Resources) 사이트'에서 교육용 기

〈표 2〉 TNA '레슨(Lessons)' 콘텐츠 - 'Slavery'

학습과제	1. 교수형에 처하거나 채찍질 당하거나 석방된 사람의 수는 얼마인가? 2. 1월 28일, 피에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 선고가 왜 가혹했다고 생각하는가? 4. 만약에 자신이 영국 노예제도 폐지론자나 옹호론자였다면 이 문서에 대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역사적사고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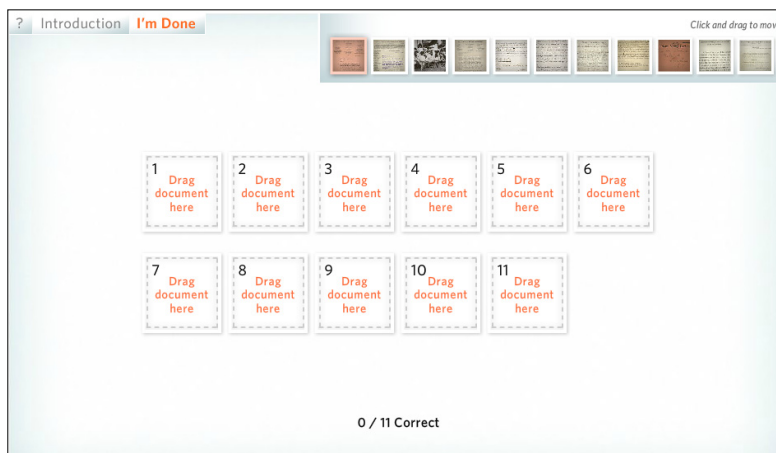
자료: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resources/slavery/#tasks>

록정보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홈페이지의 DocsTeach는 학습활동을 ‘역사의 시기구분(Historical Eras)’, ‘학습도구(Tool)’, ‘역사적 사고 기능(Historical Thinking Skill)’으로 나누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적 사고 기능’은 연대기적 사고(Chronological Thinking), 역사적 이해(Historical Comprehension), 역사적 분석과 해석(Historical Analysis & Interpretation), 역사적 연구 능력(Historical Research Capabilities), 역사적 쟁점 분석 및 의사결정력(Historical Issues-Analysis & Decision-Making)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역사 표준(National History Standards)>에서 학생이 습득해야 할 역사교육의 목표로 제

시한 역사적 사고 기능과 연결된다.<sup>4)</sup>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료와 더불어 역사적 사고 기능의 분류에 해당하는 질문을 제시해 학생들이 여러 학습도구를 사용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은 여성의 참정권 확대에 관련된 여러 문서를 보고 사건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는 활동을 통해 연대기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 도구는 시기 순 정렬하기(Finding a Sequence)를 사용하였고 시기구분으로는 근대 미국의 출현(The Emergence of Modern America 1890-1930)에 해당한다.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연대기 감



<그림 1> NARA ‘역사적 사고기능(Historical Thinking Skill)’ - Extending Suffrage to Women

자료: [http://docsteach.org/activities/62/detail?mode=browse&menu=closed&thinking\\_skill%5B%5D=chronological-thinking&sortBy=title](http://docsteach.org/activities/62/detail?mode=browse&menu=closed&thinking_skill%5B%5D=chronological-thinking&sortBy=title)

4) 역사국가표준은 학생이 습득해야 할 역사교육의 목표를 역사적 사고 기능(historical thinking skills)과 역사 이해(historical understanding) 내용영역으로 나눴다. 역사적 사고 기능은 연대기적 사고(chronological thinking), 역사 이해(historical comprehension), 역사적 분석과 해석(histor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역사적 탐구력(historical research), 역사적 쟁점 분석 및 의사결정력(historical issue analysis and decision making)으로 분류했다.

〈표 3〉 NARA ‘역사적 사고기능(Historical Thinking Skill)’ - To Sign or Not to Sign

학습활동	1. 독립선언문 작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본다.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심경은 어떠한가? 2. 15개 주의 56명의 대표자들은 선언문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찬성했던 일부 대표자들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했을까? 3. 2차 대륙회의의 구성원이었다면 본인은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서명에 따른 이해득실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사고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자료: [http://docsteach.org/activities/64/detail?mode=browse&menu=closed&thinking\\_skill%5B%5D=historical-issues-analysis-decision-making&sortBy=title](http://docsteach.org/activities/64/detail?mode=browse&menu=closed&thinking_skill%5B%5D=historical-issues-analysis-decision-making&sortBy=title)

각이 없다면 학생들은 사건 간의 관계를 이해하거나 역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도 힘들다. 학생들은 역사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하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연대기 파악력을 기를 수 있다.

〈표 3〉은 독립선언문을 자세히 살펴면서 학습활동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다. ‘질문 1’은 학생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라고 상상하고 초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을 묻고 있다. ‘질문 2’는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거부했던 대표들의 의도를 묻고 있으며 ‘질문 3’에서는 본인이 2차 대륙회의의 구성원이었다면 독립선언문에 서명할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 된다는 역사적 상상을 통해 역사적 상황의 한 인물이 되어 추체험해 봄으로써 역사적 행위에 대한 그들의 동기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상은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활동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상황에서 자신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 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학생들은 역사

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3.2 국내 사례

#### 3.2.1 국가기록원의 교육 콘텐츠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 콘텐츠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콘텐츠 유형별, 이용자 그룹별, 대통령 전시관, 전시 콘텐츠로 구성된다. 콘텐츠 유형별 구분의 하위 메뉴에는 주제 콘텐츠(22개), 시대·생활 콘텐츠(8개), 교육 콘텐츠(19개), 전문 콘텐츠(12개)가 있으며 이용자 그룹별 구분의 하위 메뉴에는 일반 사용자(23개), 학생·교사(26개), 연구자(12개)가 있다. 주제 콘텐츠에 있는 ‘기록으로 보는 4·19 혁명’과 교육 콘텐츠에 있는 ‘독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록으로 보는 4·19 혁명’은 콘텐츠 유형별로는 주제 콘텐츠, 이용자 그룹별로는 일반 사용자에게 속한다. ‘기록으로 보는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실시되다’, ‘부정선거 반대시위, 들불처럼 타오르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다’, ‘자유당 독재 잔재 청산하다’라는 소주제로 역사적 사건의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각 소주제에서는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외에도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일반문서류, 동영상기록물, 사진기록물로 분류한 뒤 각각 기록물의 건제목, 철택목, 기록물유형, 생산년도, 생산기관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19 혁명의 주요일지는 연표 순으로, 4·19 혁명의 전개과정은 연표와 지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시·공간적으로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콘텐츠이므로 기록물의 양이 많고 역사교육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다.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물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콘텐츠 자체에는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과 관련된 노력은 보이지 않으나 역사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이므로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독도’ 콘텐츠는 콘텐츠 유형별로는 교육용 콘텐츠, 이용자 그룹별로는 학생 및 교사에 속한다. ‘독도’ 콘텐츠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 문헌, 고지도,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1차 사료의 생동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에 몰입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육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역사적 사실의 이해나 사료에 대한 분석 및 탐구 등 역사적 사고와 관련된 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1차 사료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 수업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 3.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콘텐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료로 배우는 민

주화운동’은 사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사료를 활용하여 현장의 역사교사와 함께 제작한 역사교육용 콘텐츠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9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주제는 역사적 평가를 쉽게 내릴 수 없는 한국 현대사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였던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을 발생시기별로 다루고 있으며 역사 수업 시간이나 수행평가 및 자율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9개 주제 중 ‘사료로 보는 4·19 혁명’과 ‘사료로 보는 유신반대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로 보는 4·19 혁명’의 소주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의 사료학습 자료에서는 민주당의 선거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려 하자 2월 28일에 발생했던 대구 고교생들의 시위 구호내용과 3월 5일 서울 학생시위의 구호 내용을 제시한 후, 학생들이 사료를 분석하여 두 시위의 구호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구시위와 서울시위의 구호 내용을 분석하여 시위의 성격을 파악하고 두 시위의 구호내용이 변화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사료분석능력인 역사적 탐구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생각 나누기’에서는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를 우려하는 교장의 의견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게시판에 올리게 하고, 다른 학생의 글을 읽은 후 자신의 글과 비교하여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은 서로 다른 입장의 사료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으며, ‘생각 나누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여러 생각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배

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역사적 판단력이 향상될 수 있다.

‘자료로 보는 유신반대운동’의 ‘생각 나누기’에서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또래 여학생들이 쓴 글을 보며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학생의 글을 골라 자신의 입장과 비교하며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하게 한다. 우선 자신과 의견이 다른 학생의 글에서 ‘역사적 사실’이 다른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석’의 차이가 각자가 중시하는 ‘가치’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써보도록 한다. 또한 다른 학생의 글을 읽은 후 본인 생각의 변동여부와 그 이유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판단력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이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과 역사적 판단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2.3 시사점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과 관련하여 영국의 TNA는 학습활동 및 학습과제를 정형화된 형태로 구성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1차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탐구하고, 역사적 감정이입 및 추체험을 하며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방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NARA의 경우는 1차 자료별로 다양한 교수 활동을 제시하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 운영을 안내한다.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기 전, 일차적 재구성 작업을 전제로 하는 지도서 형태로 콘텐츠를 설계하고 있다. 역사적 사고 기능을 연대기적 사고, 역사 이해력, 역사적 분

석 및 해석력, 역사적 연구능력, 역사적 쟁점 분석 및 의사결정력으로 분류해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별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도구를 통해 역사적 사고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TNA와 미국의 NARA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위한 기록정보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와 학습활동을 통하여 기록물의 원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록원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사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는 영국 TNA와 미국 NARA에 비해 수량도 적고, 유형도 다양하지 못하며,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지도 않아 교사의 수정없이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거나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이용자별 접근에서 일반 사용자, 학생 및 교사, 연구자로 나누기는 했으나 교육 콘텐츠와 그 외 콘텐츠의 대상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을 뿐, 대상의 접근성을 고려한 학령별·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등 콘텐츠의 구성에 있어 명확한 차별화가 보이지 않으며,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콘텐츠를 따로 마련하거나 역사적 사고력을 자극할만한 질문이나 학습활동도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자료정보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소주제에 대한 자료학습 후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사고력 신장을 유도하고 있지만

역시 역사적 사실의 인지여부에 관한 내용이 많다. ‘생각나누기’나 ‘생각상자’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한 콘텐츠를 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 비하면 콘텐츠 자체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일부분에 사고력 신장을 위한 질문과 활동을 추가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기존의 콘텐츠를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중점을 두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조화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해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국가기록원의 교육용 콘텐츠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콘텐츠는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해 바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얻은 시사점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하고, 활동지와 학습과제 등으로 보완하여 재설계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수업에서 활용해 보는 것이다. 개발된 교수·학습 지도안과 활동지는 향후 기록정보 콘텐츠의 개발이나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하여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어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효용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S고등학교(인문계) 1학년 4개 학급에 해당하는 학생 131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법(experimentation)은 인위적으로 특정변수를 조작하여 종속변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험설계의 유형은 전실험설계의 일종인 실험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로서 통제집단 없이 무작위 할당으로, 구성되지 않은 실험집단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독립변수를 부여한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는 <표 4>와 같다. 이 방법은 실험기간 중에 외적 사건이나 성숙효과가 발생하거나, 사전검사가 피험자나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내

<표 4> 실험 설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O <sub>1</sub>	X	O <sub>2</sub>

O<sub>1</sub> : 역사적 사고력 사전검사, O<sub>2</sub> : 역사적 사고력 사후검사, X :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적 타당도 저해요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업 전·후에 4개 학급 131명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고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역사적 사고력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습주제는 '4·19 혁명'으로 60분씩 총 2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전·후에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제를 제시하였고, 수업 후에는 역사적 사고력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역사적 사고력 검사도구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어서 최상훈(2000b), 박성경(2004), 강현태(2008), 임윤식(2008), 오정현(2009), 홍은민(2011)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고력 사전·사후 검사도구를 직접 고안하여 측정하였으며, 역사학습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룬 개론서 『역사과 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참고하여 역사과 평가도구의 특성 및 사례를 검토하였다.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는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선다형 4문항씩 총 16문항과 네 영역을 망라한 서술형 총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현장 교사 10명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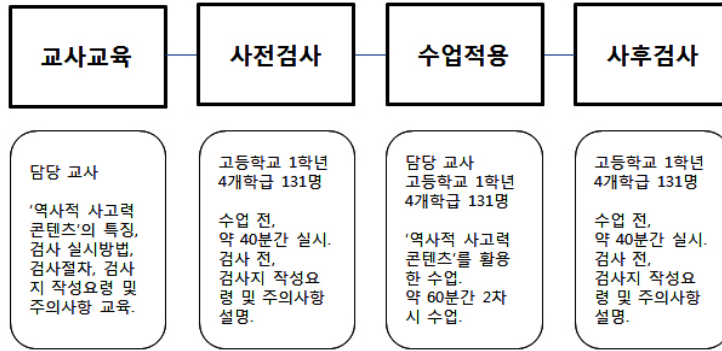
여 도구의 타당도가 높다고 인정받았다. 선다형 문제의 경우 각 영역은 최하 0점, 최고 20점으로 구성하였으며 네 영역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의 점수는 80점이다. 네 영역을 망라한 서술형 문제의 경우 최하 0점, 최고 20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선다형과 서술형 문제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의 점수는 100점이다. 검사도구의 동질성을 위해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별로 8문항씩 제작하여 각각 난이도별로 4문항씩(4점 4문항, 6점 4문항) 나눈 후 난수표를 이용하여 사전검사도구와 사후검사도구의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서술형도 같은 방식으로 문항을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역사적 사고력 검사도구의 구성은 <표 5>와 같으며 하위범주별 대표 1문항씩을 [부록 1]에 수록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교육, 사전검사, 수업적용, 사후검사의 절차에 따라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실제 수업은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기록정보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업내용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19 혁명'

<표 5> 역사적 사고력 검사도구의 구성

주제	구성요소	문항번호	문항수	배점(점)
역사적 사고력	연대기 파악력(선다형)	1,2,3,4	4	20(4점×2문항, 6점×2문항)
	역사적 탐구력(선다형)	5,6,7,8	4	20(4점×2문항, 6점×2문항)
	역사적 상상력(선다형)	9,10,11,12	4	20(4점×2문항, 6점×2문항)
	역사적 판단력(선다형)	13,14,15,16	4	20(4점×2문항, 6점×2문항)
	역사적 사고력(서술형)	17	1	20(5점×2문항, 10점×1문항)
총계			17	100



〈그림 2〉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적용과정

과 관련된 수업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주제 콘텐츠인 ‘기록으로 보는 4·19 혁명’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교육용 콘텐츠인 ‘사료로 보는 4·19 혁명’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위해 학생의 수준 및 역사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표 6〉, 〈표 7〉과 같다. 이는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효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집단 모두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실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6〉 1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과목	고등학교 한국사		대상	1학년	장소	교실
단원	IX.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1) 4·19 혁명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다.					
수업 목표	1.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증거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수 있다. 3. 역사가처럼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수업 형태	▶ 기록정보 콘텐츠(사료, 연표, 신문기사, 역사지도, 사진, 음성, 동영상)를 활용한 설명식 수업 ▶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토론식·문답식 수업					
수업 단계	수업흐름	교수·학습 활동			수업매체	유의점 및 도달점
		교사	학생			
전개	( 중 략 )					
	이승만 대통령과 제1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와 관련된 사료를 학생들이 해석하여 [제1공화국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지어 학습지에 답하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를 읽으며 이승만의 사상과 의도를 파악하고 제1공화국의 사건과 연결 짓는다. 사료를 증거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여 학습지의 질문에 답한다.</li> </ul>	사료 콘텐츠 학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학습을 통해 이승만의 사상과 의도를 파악하고 시대적 배경과 관련 연대기 파악력, 사료를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탐구력을 신장시킨다.</li> </ul>	

전개	이승만 대통령과 제1공화국	( 중 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속 [반민특위] 내용을 통해 이승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고 학생 자신이 이승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상하여 학습지에 써보고 발표하도록 한다. 상상과 판단은 증거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민특위] 내용을 읽고 학습지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후 자신의 생각, 판단을 적극적으로 발표한다.</li> </ul>	콘텐츠 학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각자의 생각, 판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며 도덕적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시킨다.</li> </ul>
	( 중 략 )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김주열의 사진]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시위에 자유당이 어떻게 대응 했을지를 상상해보게 한 후 발표하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을 보며 자유당의 대응에 대하여 상상하며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보는다.</li> </ul>	김주열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을 보며 상상적 추론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보도록 한다.</li> </ul>
( 이 하 생 략 )					

〈표 7〉 2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과목	고등학교 한국사		대상	1학년	장소	교실
단원	IX.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1) 4·19 혁명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다.					
수업 목표	1. 4·19 혁명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2. 4·19 혁명이 우리 현대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말할 수 있다. 3. 역사가처럼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수업 형태	▶ 기록정보 콘텐츠(사료, 연표, 신문기사, 역사지도, 사진, 음성, 동영상)를 활용한 설명식 수업 ▶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토론식·문답식 수업					
수업 단계	수업흐름	교수-학습 활동			수업매체	유의점 및 도달점
전개	( 중 략 )					
	1960년 4월 19일, 피의 화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에서 느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온 시[나는 알아요]를 제시하며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시인(강명희)의 생각을 학습지에 적어보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감상에서 느꼈던 4·19 혁명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인의 감정을 함께 느껴보고 학습지에 적는다.</li> </ul>	시 콘텐츠 학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인이 되어 과거의 상황에 상상적으로 들어가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 중 략 )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하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하겠다]음성녹음과 [하야 답화문]사료를 제시하며 이승만이 사임한 후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유추하도록 한다. 학습지에 작성토록 한 후 발표시킨다. 학생들의 발표내용에서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해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녹음을 들으며 답화문을 분석한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료를 토대로 하여 상상적 추론을 통해 일어날 사건을 재구성해 학습지에 정리 후 발표한다. 선생님의 설명을 경청한다.</li> </ul>	음성녹음 학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에 입각하되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발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추론하여 불확실한 증거의 간극을 메운다. (삽입: extrapolation)</li> </ul>	
생각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시위참여]에 대한 다른 입장의 글을 읽고 자신의 입장을 글로 써보도록 한다. 순회지도하면서 다른 입장을 가진 학생들의 글을 발표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위참여에 대한 다른 입장의 글을 읽으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의 글과 비교하여 생각의 차이를 확인한다.</li> </ul>	콘텐츠 학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 스스로가 역사적 판단에서 자신의 판단이 하나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li> </ul>		
( 이 하 생 략 )						

## 5. 연구의 결과 분석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값이 <표 8>이다.

### 5.1 연대기 파악력

연대기 파악력의 사전검사의 평균은 9.893, 표준편차는 5.164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11.557, 표준편차는 4.767이다. 연대기 파악력의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평균은 1.164점(20점 만점)이 향상되었다. 표준편차의 경우 사후검사의 표준편차가 사전검사의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학생들이 고른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2.966, 유의확률은 .004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에 의한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 연대기 파악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t값 및 표준편차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의 연대기 파악력 증진에 있어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5.2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탐구력의 사전검사의 평균은 10.046, 표준편차는 5.455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12.061, 표준편차는 5.138이다. 역사적 탐구력의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평균은 2.015점(20점 만점)이 향상되었다. 표준편차의 경우 사후검사의 표준편차가 사전검사의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도 학생들의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더욱 고른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변화

역사적 사고력		N	M	SD	t	p
연대기 파악력	사전검사	131	9.893	5.164	-2.966	.004
	사후검사	131	11.557	4.767		
역사적 탐구력	사전검사	131	10.046	5.455	-3.260	.001
	사후검사	131	12.061	5.138		
역사적 상상력	사전검사	131	10.947	5.532	-2.214	.029
	사후검사	131	12.198	4.904		
역사적 판단력	사전검사	131	9.664	5.749	-2.006	.047
	사후검사	131	10.779	4.750		
서술형	사전검사	131	10.870	7.877	-2.257	.026
	사후검사	131	12.344	4.637		
역사적 사고력	사전검사	131	51.374	20.271	-4.521	.000
	사후검사	131	58.840	16.658		

유의수준:  $p < .05$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3.260, 유의확률은 .001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에 의한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 역사적 탐구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값 및 표준편차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의 역사적 탐구력 증진에 있어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5.3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의 사전검사의 평균은 10.947, 표준편차는 5.532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12.198, 표준편차는 4.904이다. 역사적 상상력의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평균은 1.252점(20점 만점)이 향상되었다. 표준편차의 경우 사후검사의 표준편차가 사전검사의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 학생들의 점수분포가 더욱 고르다고 볼 수 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2.214, 유의확률은 .029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에 의한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 역사적 상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t값 및 표준편차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 증진에 있어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5.4 역사적 판단력

역사적 판단력의 사전검사의 평균은 9.664, 표

준편차는 5.749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10.779, 표준편차는 4.750이다. 역사적 판단력의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평균은 1.252점(20점 만점)이 향상되었다. 표준편차의 경우 사후검사의 표준편차가 사전검사의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학생들이 고른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2.006, 유의확률은 .04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에 의한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 역사적 판단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값 및 표준편차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의 역사적 판단력 증진에 있어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하위범주에 비해 역사적 판단력의 점수 향상 폭이 작은 것은 역사적 판단력이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5.5 서술형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의 변화

서술형을 통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의 사전검사의 평균은 10.870, 표준편차는 7.877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12.344, 표준편차는 4.637이다.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평균은 1.473점(20점 만점)이 향상되었다. 표준편차의 경우 사후검사의 표준편차가 사전검사의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술형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역사



적 사고와 관련없이 역사적 사실 위주의 단답형으로 짧게 서술한 학생들이 많은 반면, 사후검사에서 수업과 과제를 통하여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받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사료를 분석하고 역사적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여 과거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일에 흥미를 갖고 자세히 서술하여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학생들이 고른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2.257, 유의확률은 .026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서술형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에 있어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한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t값 및 표준편차로 미루어볼 때 서술형을 통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증진에 있어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으로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별 학생들의 사고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의 사전검사의 평균은 51.374, 표준편차는 20.271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58.840, 표준편차는 16.658이다.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평균은 7.466점(100점 만점)이 향상되었다. 표준편차의 경우 사후검사의 표준편차가 사전검사의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학생들이 고른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4.521, 유의

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에 의한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 역사적 사고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t점수 및 표준편차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증진에 있어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직접 설계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결과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하여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의 교육적 효용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국내외 사례를 역사적 사고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고, 그 결과 얻은 시사점을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TNA와 미국 NARA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며 풍부한 질문 및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TNA는 학습활동 및 학습과제의 구성을 정형화하여 제시된 사료를 탐구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추체험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도록 하여 역사적 사고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ARA의 경우는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별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도구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향상

에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국내의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는 수량도 적고, 유형도 다양하지 못하며 역사적 사고의 기회 제공이나 역사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수업의 활용도 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교사 및 학생, 일반사용자, 전문가 등으로 이용자별 접근을 제공하나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 중에서 역사과목에 적합한 콘텐츠의 경우에도 역사적 사고의 기회가 되는 질문이나 학습 활동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경우는 사료 학습 이후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의 인지여부에 관한 질문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생각나누기'나 '생각상자'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콘텐츠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국내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나아갈 방향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내외의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분석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설계한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은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인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평균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학생들이 고른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서술형을 통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역사적 사고력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한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과 과제를 통하여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받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서술형의 검사도구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저득점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편차도 줄어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학생들이 고른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수업에서 기록정보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제조건은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가 학생의 수준, 역사교육과정, 역사교육의 목적과 부합하여 구성되었는지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학생의 수준 및 역사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록정보 콘텐츠를 개발 및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아카이브 자체의 생동감에서 수업에 대한 흥미를 얻고, 이를 분석,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받아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경험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용자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의 고려는 기록정보 콘텐츠 이용자 저변의 확대를 가져와 이용자가 만족하는 기록관리체제의 구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영아 (2007). 연표학습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의 발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
- 강현태 (2008). 학업성취도에 따른 역사적 사고력의 차이. 역사교육연구, 8, 137-184.
- 김솔 (2013).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59-79.
- 김지수 (1996).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사료학습 연구 - 고등학교 세계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 김한중 외 (2005).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서울: 책과함께.
- 문명숙 (2013). 기록콘텐츠를 활용한 역사인물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 박성경 (2004). 사회과 부도 활용이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6학년 사회과 역사영역수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성보 (2007). 교수·학습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201-256.
- 양호환 (2000). 역사학습의 인식론적 모색. 역사교육, 75, 1-21.
- 양호환 (2001).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삼지원.
- 오정현 (2009). 역사과 평가 문항의 위계성 검토. 역사교육연구, 9, 97-144.
- 오항녕 (2007). 역사교육의 또 다른 지평, '아카이브'. 역사교육, 101, 297-327.
- 외교부 (2013). 영국개황. 서울: 외교부.
- 이은영 (2011).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임윤식 (2008). 초등사회과에서 사료를 활용한 역사적 사고력 평가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전공.
- 장문각 (2011).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비판적 역사 글쓰기 방안: 역사관 적용 학습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교육전공.
- 장선영 (2011). 워크숍용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5학년 사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전수진 (2008).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27-152.
- 정나래 (2011). 중학생의 역사적 판단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안 연구: 여말선초 '조선의 건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 정해준 (1995).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탐구학습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최상훈 (2000a).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와 역사학습목표의 설정방안. *역사교육*, 73, 1-35.
- 최상훈 (2000b). 역사적 사고력의 학습 및 평가 방안.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 최상훈 (2012). 역사과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책과함께.
- 최세훈 (2004).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인물을 통한 감정이입적 역사학습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
- 홍은민 (2011). 의사결정 에피소드 협동학습 프로그램이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전공.

#### [웹사이트]

- DocsTeach. 검색일자: 2014. 5. 30. <http://docsteach.org>
- 국가기록원 교육 콘텐츠. 검색일자: 2014. 6. 10.  
<http://www.archives.go.kr/next/theme/themeView04.do>
- 미국 NARA 교사용 자료 사이트. 검색일자: 2014. 5. 18.  
<http://www.archives.gov/educatio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콘텐츠. 검색일자: 2014. 6. 25.  
<http://archives.kdemo.or.kr/Contents>
- 영국 TNA의 교육사이트. 검색일자: 2014. 5. 14.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Sang Hoon (2000a). Subcategories of Historical Thinking and Establishment Method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Studies on History Education*, 73, 1-35.
- Choi, Sang Hoon (2000b). Learning and Assessment of Historical Thin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Sae Hun (2004). Development of elementary history-learning program using empathy in historical fig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Sang Hoon (2012).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Assessment. Seoul: Chaek gwahamkke.
- Hong, Eun Min (2011). Effects of the Individual-Then-Group Decision-Making Episodes program on Historical Th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Jang, Mun Gak (2011). A plan for critical writing to improve historical thinking: focusing on a learning model for application of historical view.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Jang, Sun Young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Workshops: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5th grade social stud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Soo Jin (2008). Analysis on Online Contents Services of National Archives.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Management*, 8(2), 127-152.
- Jung, Hae Joon (1995). The study of inquiry learning theory to enhance the historical though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Kyoung gi, Korea.
- Jung, Na Rae (2011). Teaching middle school students to think and judge historically in Korea - Centering on the theme of 'Foundation of Chosun' -.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Hyun Tae (2008). Difference of Historical Thinking in accordance with Educational Achievement - focus on Chronology comprehension ability and historical. *Studies on History Education*, 8, 137-184.
- Kang, Young A (2007). Development of historical thinking through chronological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Kim, Ji Soo (1996). Search for Teaching and Studying Methods for Enhancing Historical Thinking by using Historical Resour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ol (2013). Application of Online Content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Elementary Education.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Management*, 13(1), 59-79.
- Kim, Han Jong et al. (2005). *History Education and Historical Awareness*. Seoul: Chaek gwahamkke.
- Lee, Eun Yeong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s for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Lim, Yun Shik (2008). Assessment of historical thinking using historical documents in the social studies of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3). *United Kingdom Overview*. Seou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oon, Myeong Sook (2013). A study on the education of a historic figure using record cont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Oh, Hang Nyeong (2007). A Reflection on the Self-evi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History

- Education and Archives, *Studies on History Education*, 101, 297-327.
- Oh, Jeung Hyun (2009). A Study on Hierarchy of Test Items in History Examination. *Studies on History Education*, 9, 97-144.
- Park, Sung Kyung (2004). Effects on the utilization of maps attached to historical thinking: Focused on social studies in the 6th gra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Shim, Sung Bo (2007).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201-256.
- Yang, Ho Hwan (2000). An Epistemological Reorientation of research on History Teaching. *Studies on History Education*, 75, 1-21.
- Yang, Ho Hwan (2001). *Theories and methods of history education*. Seoul: Samjiwon.

[부록 1] 역사적 사고력 검사도구5)

[연대기 파악력]

1. (가)~(마) 시기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점)

	1608	1623	1659	1674	
	(가)	(나)	(다)	(라)	(마)
	광해군 즉위	인조 즉위	현종 즉위	숙종 즉위	

- ① (가) 봉당 간 세력 균형을 위해 탕평론을 제기하였다.
- ② (나)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였다.
- ③ (다) 동인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 북인으로 분화하였다.
- ④ (라) 두 차례의 환국이 발생하여 봉당 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 ⑤ (마)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화가 출현하였다.

[역사적 탐구력]

2. 영희는 자료 (가)를 읽고 (A)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나)와 같은 사료를 발견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료 비판이 끝난 후 영희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B)에 들어갈 새로운 결론은? (6점)

(가)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병사들은 모두 인심을 잃어서 왜란이 일어난 뒤에 군인과 양곡을 독촉하자 백성들은 다 이들을 미워하여 왜적을 만나면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 마침내 도내의 거족으로 명망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의를 부르짖고 일어나니 소문을 들은 자들은 격동하여 원근에서 이를 응모하였다. 비록 크게 이긴 싸움은 없었지만 민심을 얻어서 국가의 명맥은 이에 힘입어 유지할 수 있었다.

-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6월

(A) 결론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은 향토 지리에 알맞은 전술을 활용하여 적은 병력으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어 향촌 사회를 지켜냈으며 후에 관군에 편입되어 관군의 전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5)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별로 대표적인 문항 하나씩만 제시하였음.

(나) 의병이란 자들은 군부에 이름이 있으나 피난, 도망한 자끼리 마음대로 떼를 이루고, 관가의 절제를 싫어하여 피하는 무리다. 의병은 이로울 때는 싸우고 강적을 만나면 번번이 흩어졌다. 그럼에도 승리하면 큰 상을 받고 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부대들이 뿔뿔이 흩어져 통속된 바가 없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조정에서 의병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의논한다.

- 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B) 새로운 결론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은 향토 지리에 알맞은 전술을 활용하여 적은 병력으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어 향촌 사회를 지켜냈으며 후에 관군에 편입되어 관군의 전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_\_\_\_\_

- ① 전란이 길어지자 갖가지 폐단을 일으켜 점점 변질되어갔다.
- ② 일부 의병장들은 군량이나 무기까지 제 힘으로 마련해 의병을 모집하였다.
- ③ 의병이 이끄는 수군의 승리로 전라도의 곡창 지대를 수호할 수 있었다.
- ④ 왜란 당시 육지에서는 전직 관료, 사림 등이 중심이 되어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 ⑤ 의병이 공적인 군대로 인정되어 의병에 지원하는 이가 많아졌다.

[역사적 상상력]

3. 다음 사료(가), (다)를 바탕으로 (나)에 들어갈 사건을 바르게 상상한 것은? (6점)

(가) OO 12년 6월, 정광필, 김응기, 신용개가 말하였다. “여진에 대비하여 성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승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모두 함께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시고, 이름은 비변사라 하십시오.”



(나)



(다) 김익희가 상소하였다. “요즈음 비변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걸이춤만 지니고, 6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변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 ①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수탈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거야.
- ② 봉당 간 대립이 심화되고 왕권이 불안해지자 왕은 탕평론을 제기하였을 거야.
- ③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왕권 강화에 힘썼을 거야.
- ④ 균역법을 실시하고, 신문고를 부활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 노력했을 거야.
- 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구가 격감하고 토지대장과 호적이 소실되어 혼란을 초래하였을 거야.

[역사적 판단력]

4. 실학자들의 개혁안 (가)와 (나)를 분석하여 각각의 주장에 대해 옳게 판단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6점)

(가) 토지 경영이 바로 잡히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이다. 백성은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군사행정에는 도피자를 찾는 폐단이 없어지며, 귀천상하가 모두 자기 직책을 갖게 될 것이므로 민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도타워질 것이다. …… 농부 한 사람이 토지 1경을 받아 법에 따라 조세를 낸다. 4경마다 군인 1인을 낸다. 사대부로서 처음 학교에 입학한 자는 2경을 받는다. …… 토지를 받은 자가 죽으면 반납한다.  
- 유형원, 반계수록

(나) 대체로 샘물은 비유하건대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쭉그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나라에 공장의 도야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사농공상의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 박제가, 북학의

— <보 기> —

ㄱ. (가)의 개혁안은 자영농 육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여.  
 ㄴ. (나)는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하였을 거야.  
 ㄷ. (나)의 북학사상은 위정척사 사상에 영향을 주었을 거야.  
 ㄹ. (가), (나)는 17~18세기에 성리학의 한계를 비판하며 제기되었을 거야.  
 ㅁ. (가), (나)의 주장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거야.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ㄱ, ㄴ, ㄹ
- ⑤ ㄱ, ㄹ, ㅁ